

시멘트·콘크리트 관련 주요 뉴스 및 단신



주요 시멘트업체 발전 등 신사업 추진



주요 시멘트 회사들이 발전 등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쌍용양회가 최근 폐열발전소 건립에 나선데 이어 성신양회도 조만간 이 사업에 뛰어들다.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은 지난해부터 시간당 수십만MW 규모의 발전소를 가동 중이다.

시멘트 생산공정은 제철소와 유사하게 용광로(소성로)를 가동하므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업체들은 그동안 버려지던 폐열로 전기를 생산, 자체 충당과 함께 남은 전기를 한전에 공급해 업체별로 수 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시멘트업체들은 주로 시멘트와 연관된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폐열발전과 태양광발전(쌍용), 화력발전(동양) 등 발전사업이 주류를 이룬다. 이밖에 메탈실리콘(쌍용, 아세아)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6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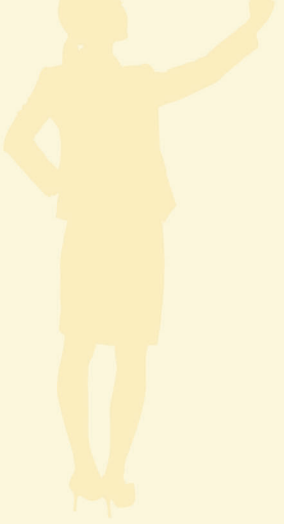
중국 불경기 여파 시멘트시장 위축

건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국 시멘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아주경제신문이 중국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시멘트 평균가는 6월 중순 현재 톤당 336.25위안으로 전월보다 0.8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 가격은 특히 베이징, 허베이, 안후이 지역 등에서 많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시멘트업체 1분기 수익은 전년대비 60% 감소했다. 그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하이뤄 시멘트(海螺水泥)마저도 상반기 수익이 전년대비 50%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들어가면 금리인하·지준율 하향조정 등 긴축 완화정책이 나와 부동산 개발이 촉진 될 것이며 더불어 시멘트 경기도 다시 되살아 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6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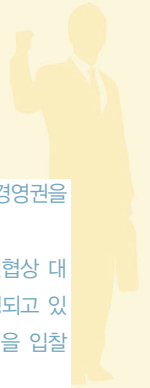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세계 최고 기술 2건 선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대표적인 기술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2012년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BT(World Best Technology: 세계최고기술)'로 '초고성능 콘크리트 활용 사장교 기술'과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 2건을 선정하였다.

김병석 SOC성능연구소장이 주축이 된 '초고성능 콘크리트 활용 사장교 기술'은 신재료인 초고성능 콘크리트를 사장교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최적 구조 및 재료 기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530m 콘크리트 사장교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을 최대 1,000m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1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WBT(세계최고기술) 제2호로 선정된 황성도 연구위원팀의 '저탄소 중온 아스팔트 포장 공법'은 아스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탄소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고, 인체 유해물질 발생량까지 억제하는 효과적인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해외 관련 기술과 비교했을 때 뛰어난 경제성과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녹색 건설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6월 12일)



한앤컴퍼니, 대한시멘트 인수

신생 사모투자펀드(PEF) 한앤컴퍼니가 삼표를 누르고 법정관리회사인 대한시멘트의 경영권을 획득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매각 주체인 광주지방법원은 4월 12일, 한앤컴퍼니 펀드를 대한시멘트 최종 인수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앤컴퍼니가 썬낸 입찰 가격은 2,00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표 역시 대한시멘트 정리채권 총액인 600억원을 훨씬 넘는 2,000억 원대 금액을 입찰가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앤컴퍼니를 누르지 못했다.

한앤컴퍼니의 이번 대한시멘트 인수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한계 상태에 이른 국내 시멘트 산업에 대한 PEF발 구조 재편(consolidation)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월 12일)

탄소저감형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포스코건설이 친환경 초고강도 콘크리트인 포스크리트(POSCRETE)를 개발해 자사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및 쌍용양회 등과 공동 개발한 포스크리트는 시멘트 대신 용광로에서 철을 만들 때 생기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주원료로 사용한다. 이 때문에 시멘트와 물 등을 배합할 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이다. 또한 일반 콘크리트 강도가 24~30MPa(메가파스칼)인데 비해 최고 100MPa까지 낼 수 있다. 1cm² 면적에 1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강도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크리트가 사용된 서울숲 더샵 아파트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이산화탄소 저감량이 1만2,000여톤에 달한다”며 “이는 남산의 4.6배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하거나, 소나무 31만 그루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라고 말했다. (5월 9일)

세계 최초 콘크리트 축진양생 신기술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고태훈 박사팀과 (주)진인은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발열시스템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양생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친환경 콘크리트 급속시공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데우는 원리를 이용하여 특수 제작된 거푸집을 활용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양생을 빠르게 하는 최적 온도인 35~55℃를 지속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확보와 급속시공 모두를 가능하게 한 신기술이다.

철도연 홍순만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형적인 특성상 철도 및 도로에 교량과 터널의 비중이 많고, 콘크리트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건설현장에서 매우 반기는 기술”이라며 “북미, 러시아, 북유럽, 중앙아시아 등 혹한지 해외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30일)

서울-강릉 철도 착공, 1시간대 연결

국토해양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원주~강릉 철도의 기공식을 6월 1일 강릉역에서 개최하였다.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은 총 3조9,4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원주~평창~강릉간 총연장 120.3km를 최대속도 250km/h급의 복선전철로 건설하게 된다. 총 11개 공구 중 공사기간이 긴 평창~대관령 구간 5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6개 공구(서원주~평창, 강릉시내)는 올해 12월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하여, 2017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강원권의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인해 강원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는 수도권 기능의 분담 및 관광·레저 산업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 (6월 1일)

